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3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1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2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빛으사 날 받아주소서

3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4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후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 담당

11/29(화)	11/30(수)	12/1(목)	12/2(금)	12/3(토)	12/5(월)
홍광진 안수집사	김방현 안수집사	김현웅 안수집사	고성호 안수집사	전해용 안수집사	정명수 안수집사

이른아침예배

(대림절 묵상)

인도 : 이진영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301장
기도	김현웅 안수집사
성경봉독	시편 56:8
찬양	주 나를 사랑 하시오니
설교	『주 앞에서 올라』 이상학 목사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찬송	214장
축도	설교자

< 오늘의 묵상 >

8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요일	본문	제목
12월 2일(금)	요나 1:3-4	배 밑에 숨어도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2년 12월 01일(목)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해 주셔서, 한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첫날, 대림절 묵상 이른아침예배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새문안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고 정결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잠든 영혼이 깨어나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투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사,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북의 평화 통일과 동북아의 화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